

# 기술발전 첨단인 수면 아래를 훑아 쫓다 ... '딥페이크 악당' 추적기

news 1

황덕현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황덕현 기자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취재 당시 모습)

시작은 n번방이었다. 여성·청소년의 성을 유린하고 무참히 짓밟은 조주빈 일당 말이다. 일간지와 지상파 언론이 초두(初頭)를 쫓기 시작한 악성(惡性)을 취재하면서 마음이, 정신이 또 몸이 피폐해져 갔다. 함께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타사 바이스 캡들의 얼굴처럼, 내 안색도 깊은 동굴 속처럼 어두워져 갔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은 세상 가장 끔찍한 장면이나 사물을 소묘해야 하는 느낌. 소방관이나 해난구조대처럼 기자에게도 트라우마 치료란 게 필요하다면 이런 순간을 위

한 것일까. 이따금 '같은 취재'를 하는 동료 얼굴의 낮빛을 볼 때면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다. 거울 속의 나 또한 그랬다.

그럼에도 끝의 끝까지 취재하고자, 흔적 찾기에 투신, 시선을 거두거나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골몰했던 것은, 디지털 성범죄란 범행의 잔인함을 여러 경로로 목도한 탓이다.

온라인 상 흔적이란 몸 안에 갇힌 악령 같아서, 한쪽부분을 차단·박멸했다 생각할 때쯤이면 누군가는 다시 다른쪽 구석에서 피해 영상·사진을 공유했다. 아예 자료방이나 회랑을 꾸러서 피해자들을 전

시하는 흔적도 발견했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용을 전달했다. 그걸 받은 전국 각지 경찰청의 전화 또한 상대했다. 상황은 수사관같은 취재의 연속이었다.

이 와중 ‘딤편이크 피해 콘텐츠’를 접하게 됐다. 처음 본 것은 중국의 성인물 공유 채팅방이었다. n번방 피해물이 국외로 번지면서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까 싶어 들어간 공간에선 성인영화배우나 AV배우 등이 합성된 사진, 영상이 다수 존재했다.

그중 한국 여성·아이돌그룹 멤버로 추정되는 이들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그러진 얼굴과 상상한 바 없던 행동, 연예계 콘셉트나 개인 SNS에서 볼 수 없는 추태들이 뒤섞인 것, 모두 거짓일 게 뻔한 모습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다. 연예인에 큰 관심 없었음에도 알 수 밖에 없는 ‘국민 아이돌 그룹’ 유명 멤버들의 가짜 모습에 경악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인터넷 유명인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채팅방은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 나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금방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채팅방 주소로 들어가면 또 다른 사진, 영상이 있었던 것인데, 나뭇가지가 방사형으로 펼쳐지듯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처음의 우려는 공포로 번졌다.

모두가 범죄다. 만들거나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뿌리거나 다른 곳에 이를 소개하는 것들이 연이었다. ‘이 연예인 제작 사

진·영상이 있다면 더 올려봐라’는 끔찍한 말을 갈무리할 때쯤이면 그 글은 벌써 온데 간데 없이 지워졌고, 또다른 폭력적인 말들이 채워졌다. 누가 주범일까, 어떤 방향으로 취재를 더해야 하나 고심만 깊어졌다.

주범이나 중범 격인 해당 공간의 운영자 접촉에 한참이나 고심했다. 음지로 숨어버리는 것을 뒤쫓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자초지종을 톺아 캐묻는 건 취재 영역. 그러나 숨기 쉬운 텔레그램이란 특성상 절벽처럼 푹 끊겨버린다면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참을 생각해 접촉했지만 그는 묵묵부답, 그리고 도망. 몇 개 방이 순식간에 닫혔다.

수사기관이나 사건·사고 현장을 취재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 취재는 여러 방향의 벽이 도처에 숨어있다.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해소해보고자 데이터 저널리즘 성격의 기술들을 연마하곤 했다. 웹 크롤링이나 포털사이트 상세검색 등으로 쫓을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특히 이 취재의 주 무대인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은 벽과 신기루가 뒤섞여서 한참 애를 먹었다.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수사관과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이 있지만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함은 배가 누적됐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취재한 것을 묶어서 기사로 냈다. ‘유명 女아이돌 딤편이크’ 텔레그램방 확인...경찰 “엄정 수사” 기사는 그렇게 세상에 던져졌다. 여론이 뜨거웠다. n번방과 같은 특정 불법

촬영물 외 영역으로 수사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아이돌 가수 아이유의 ‘짜퐁’ 격인 ‘차이유’가 나타나면서 경각심이 강화됐고, 인기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문제를 건드리면서 보다 큰 이슈가 됐다.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져서 청와대 게시판엔 ‘여성 연예인 딤편이크 규탄’ 목소리에 40만명 가까운 국민 청원동의 등 공감대가 자리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는 상태다.

국내에선 그나마 접속의 길이 막혔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돌 그룹 등 여성 연예인들이 합성된 딤편이크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보도 뒤 데뷔해, 국제적 인기를 구가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아이돌을 합성한 포르노가 떠다니는가 하면,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우는 일반인 합성물도 플랫폼, 메신저를 옮겨가며 끊이지 않는 상태다.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왔을까.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이를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적이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운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사도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여론이 n번방 사태에서 사그라든 사이에, 여전히 텔레그램 수사는 단단한 옹벽처럼 막혀있는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

선 수사가 몇 걸음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의 얼굴이, 누군가의 자녀 얼굴이 찍지 않은 성인영화와 합성돼 여전히 온라인상 유명처럼 부유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는 시간을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연예기획사의 강력한 의지와 인식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성 아이돌 그룹 딤편이크 영상’ 보도 당시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만연해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소속 연예인 딤편이크 영상을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K-팝 위상에 걸맞지 않은 처사는 악성댓글을 다는 ‘악플러’ 강경 대응처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기자들의 ‘기술력’ 보강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제너럴리스트로서 기자라도 검색기술, 프로그래밍기술 등의 무기가 붙는다면 온라인이 강화된 세상에서 ‘추가 무기’를 가지고 궁금증이나 진실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벌써 1년 전 취재했던 것을 글로 꼭꼭 눌러쓰면서 몇 개 다짐을 더했다. 기자로, 훈장도 면허도 아닌 그저 찾고 묻고 쓰는 기자로 있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할 것을. 무엇을 톺아보거나 쫓을 때는, 한참이나 부족한 글솜씨나 취재력이라도 끝끝내 물고 늘어지기를. 언젠가 모두 잊을 보도라도 스스로 잊지 않는다면 중국이라도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기억하기를. 🇵🇸